



#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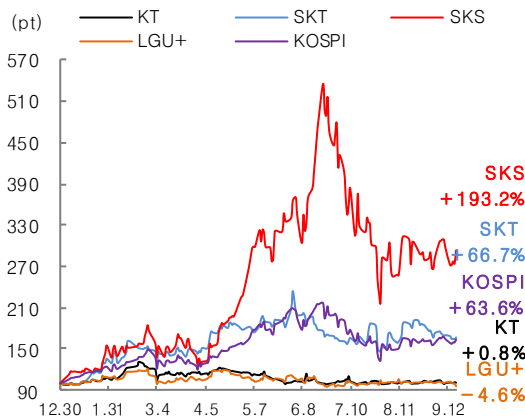
## 1. 주가 현황

| 기업                | 25/12/30 | 09/11     | 09/18     | 연간 상승     | 수익률      | 주간 상승    | 수익률    | 12MF DPS | 배당수익률 | 주간 그래프 |
|-------------------|----------|-----------|-----------|-----------|----------|----------|--------|----------|-------|--------|
| SKT<br>(017670)   | 53,500   | 90,900    | 89,200    | ▲ 35,700  | ▲ 66.7%  | ▼ 1,700  | ▼ 1.9% | 3,160    | 3.5   |        |
| SK스퀘어<br>(402340) | 368,000  | 1,089,000 | 1,079,000 | ▲ 711,000 | ▲ 193.2% | ▼ 10,000 | ▼ 0.9% |          |       |        |
| KT<br>(030200)    | 52,600   | 52,700    | 53,000    | ▲ 400     | ▲ 0.8%   | ▲ 300    | ▲ 0.6% | 2,700    | 5.1   |        |
| LGU+<br>(032640)  | 14,720   | 14,890    | 14,050    | ▼ 670     | ▼ 4.6%   | ▼ 840    | ▼ 5.6% | 700      | 5.0   |        |
| KOSPI             | 4,214.2  | 6,909.9   | 6,894.2   | ▲ 2,680.1 | ▲ 63.6%  | ▼ 15.7   | ▼ 0.2% |          |       |        |

-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AIDC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 통신 주간 -1.7%, KOSPI -0.2%. YTD 통신 +23.6%, 지수 +63.6%. 매크로 변수에 따른 지수의 등락이 컸던 가운데 통신은 안정적인 흐름 유지
  - KT는 상승. 26.8월 CEO 콤데이와 이번 주 KT Cloud Summit에서 AIDC 관련 로드맵들이 구체화 되는 것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 31년까지 실수요에 기반한 1GW 구축 및 200MW 이미 확보, 해저케이블 포함 6조원 투자, 매출 4.8조원 등 3사 중 가장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 SKT는 3주간 하락하며 9만원선이 깨지면서 매수세 유입. 10~11월 Anthropic IPO를 앞두고 관망세 형성. 965bn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IPO가 진행되면 상승, 이후 시종 유지 여부에 따라 주가 상승 또는 차익 실현 등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 LGU+는 하락. 양호한 실적과 자사주 취득 등 투자 포인트가 좋아서 15만원선 안착을 시도했으나, 이번 주 14만원까지 하락. 특별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 3Q 3천억원대의 양호한 실적 전망을 확인해 가면서 다시 15만원대 안착 시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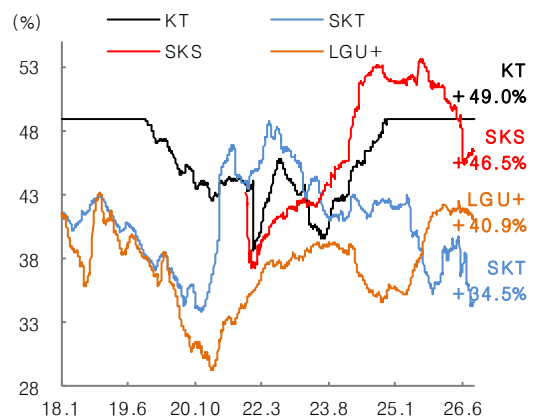
## 2. 주가 차트

###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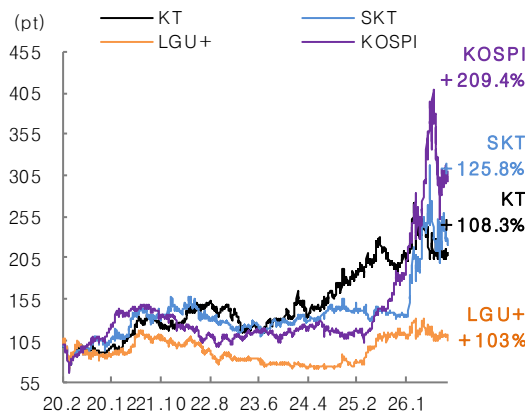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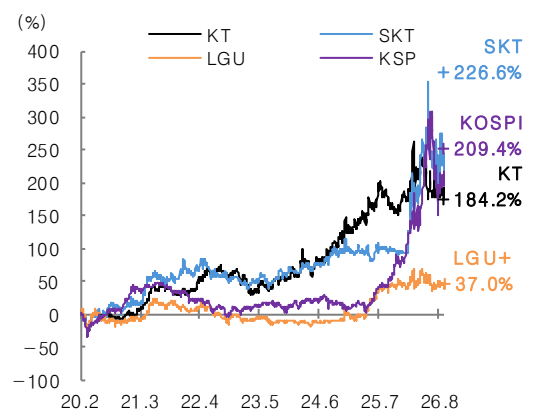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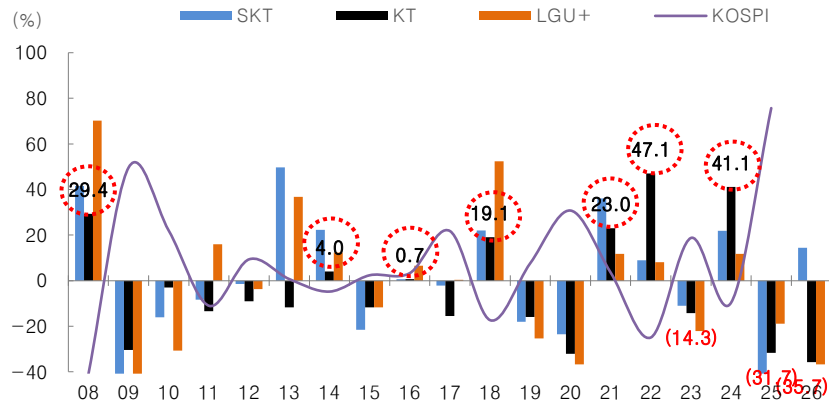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66.7%(+1.9%), KT +0.8%(−38.4%), LGU+4.6%(−41.7%)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    | SKT    | KT     | LGU+   | KOSPI  | 상대수익률  | 상대수익률  | 상대수익률  |
|----|--------|--------|--------|--------|--------|--------|--------|
| 19 | (11.7) | (9.4)  | (19.5) | 7.7    | (18.0) | (15.9) | (25.3) |
| 20 | 0.0    | (11.1) | (17.3) | 30.8   | (23.5) | (32.0) | (36.7) |
| 21 | 41.0   | 27.5   | 15.7   | 3.6    | 36.1   | 23.0   | 11.7   |
| 22 | (18.1) | 10.5   | (18.8) | (24.9) | 9.0    | 47.1   | 8.2    |
| 23 | 5.7    | 1.8    | (7.4)  | 18.7   | (11.0) | (14.3) | (22.0) |
| 24 | 10.2   | 27.5   | 1.0    | (9.6)  | 21.9   | 41.1   | 11.7   |
| 25 | (3.1)  | 20.0   | 42.5   | 75.6   | (44.8) | (31.7) | (18.9) |
| 26 | 66.7   | 0.8    | (4.6)  | 63.6   | 1.9    | (38.4) | (41.7) |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음영은 통신3사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 3. 주간 코멘트

#### KT클라우드 AIDC 로드맵, KT 비핵심사업 정리, SKT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 KT 기업전용 5G, 데이터 트래픽 BM 개선

##### KT

##### KT클라우드 AIDC 로드맵

1. KT클라우드가 31년까지 전국 20여개 사이트에 1GW 이상의 AIDC를 필수요 기반으로 공급하는 중장기 로드맵 공개. 수도권 고객 맞춤형과 비수도권 글로벌 연계형 클러스터를 병행해 AI 인프라 전 구간을 책임지는 AX 파트너 지향
2. 데이터센터를 먼저 건설하는 대신 테넌트를 확보한 뒤 개발하는 수요 연계형 공급이 핵심 원칙이며 현재 약 200MW 규모 확보. 지방은 40MW급 사업을 우선 구축한 뒤 수요에 따라 수백MW 규모로 확대하고 군산 AIDC는 40MW에서 최대 300MW까지 확장 계획
3. KT그룹은 해저케이블·육양국·백분망·DCI·AIDC·AI 엣지를 하나의 사업자가 설계·구축·운영하는 통합 인프라 전략 제시. 31년까지 예상 수요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해저케이블 확보와 제주 육양국 신설, 전국 3,500여개 국사 활용도 추진
4. 자체 기술 측면에서는 CFD 해석으로 냉각 분석 기간을 약 30% 단축하고 랙당 140kW 고밀도 환경과 D2C 액체냉각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 자체 운영 플랫폼 'AIDC 오픈'과 AI 예지보전, AI 에이전트 재해복구 훈련, 로봇 기반 무인 점검 체계도 구축
5. 수도권은 여의도 금융·목동 B2B·부천과 청라 빅테크·안산과 용인 GPU 등 수요별 특화 클러스터로 개발하고 비수도권은 글로벌 연계 거점으로 확장. 부산 영남권은 해저케이블을 활용하고 서남권은 전력과 부지 확장성을 기반으로 신규 수요 유치
6. 클라우드 부문에서는 여러 클라우드·연산자원·AI 모델을 보안·성능·비용에 맞춰 조합하는 'Composite AI'를 차세대 전략으로 제시. 27년 초까지 서로 다른 클라우드의 포털·권한·정책을 통합하는 'Single Cloud Experience' 완성 목표

##### 공정적

- 26.6월 통신사를 포함 다양한 사업자들이 AIDC 구축 계획 발표. 다소 급하게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
- KT는 투자 금액, 규모, 예상 매출 등을 구체화시켜 가는 중. 특히, 31년 예상 매출 4.8조원(AIDC 4.4조원, 해저케이블 4천억원)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중

##### KT

##### KT 비핵심사업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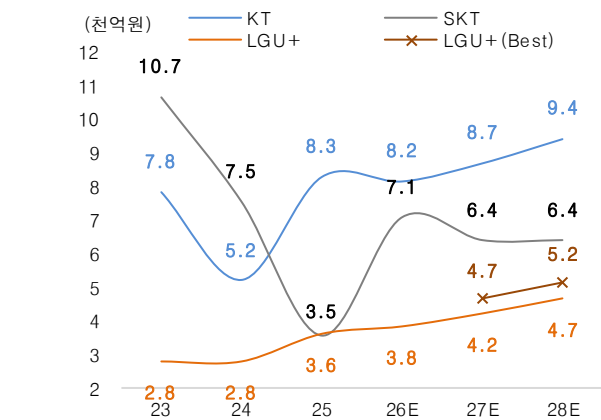
1. KT가 플레이디 매각에 이어 지분 43%를 보유한 KT나스미디어 매각을 추진하며 광고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 복수 법무법인에 매각 관련 입찰제안요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핵심 자산 정리 기조 확대
2. KT나스미디어는 디지털 옥외광고와 OTT 광고 판매 대형 등을 영위하며 영업이익이 22년 330억원에서 지난해 123억원까지 감소.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21%에서 10%대로 하락하며 장기간 수익성 둔화
3. 올해는 OTT 광고와 디지털 옥외광고 성장으로 상반기 매출 587억원, 영업이익 111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회복세. 지난해 대손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와 광고사업 개선이 반영
4. KT는 지난해 검색광고·퍼포먼스 마케팅 업체 플레이디를 SOOP에 735억원에 매각하고 KTis 디지털광고 사업부도 처분. KT나스미디어까지 매각할 경우 그룹 차원의 광고 사업 정리가 사실상 마무리
5. 사업 재편은 광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보안 계열사 이니텍과 KT ENA 분할법인 에이아이미디어방송 지분 처분 등으로 확대. 수익성이 낮거나 핵심 전략과 거리가 있는 사업을 정리해 통신과 AI 중심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는 방향
6. KT는 통신 기반 강화와 AI 신사업 육성을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IT·네트워크·보안 등에 3년간 약 12조원 투자 계획. 별도로 AI 인프라 확충에 5년간

6조원을 투입하며 비핵심 자산 매각과 AX 중심 사업구조 전환을 병행하는 전략

|     |                                                                                                                                                                                                                                                                                                                                                                                                                                                                                                                                                                                                                                                                                                                                                                                                                                                                                                                                                                                                    |
|-----|----------------------------------------------------------------------------------------------------------------------------------------------------------------------------------------------------------------------------------------------------------------------------------------------------------------------------------------------------------------------------------------------------------------------------------------------------------------------------------------------------------------------------------------------------------------------------------------------------------------------------------------------------------------------------------------------------------------------------------------------------------------------------------------------------------------------------------------------------------------------------------------------------------------------------------------------------------------------------------------------------|
| 공정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나,</li> <li>■ 지금은 AIDC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축이 생겼기 때문에, 성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li> </ul>                                                                                                                                                                                                                                                                                                                                                                                                                                                                                                                                                                                                                                                                                                                                                                                                                 |
| SKT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SKT가 AI 에이전트 시대에 문자메시지를 이용자의 최종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신뢰 채널로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화 추진. 서울에서 GSMA RCS 그룹 회의를 열고 AI와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를 결합하는 기술·서비스 규격 논의</li> <li>2. 회의에는 AT&amp;T·T모바일·보다폰·오렌지 등 통신사와 애플·구글·삼성전자 등 16개사 실무진 및 GSMA 관계자 33명 참석. SKT는 'RCS 기반 AI 에이전트 승인'을 공식 표준 안건으로 제안하며 글로벌 사업자와 협의 착수</li> <li>3. AI 에이전트가 주문이나 결제를 대신 처리하는 환경에서는 실제 거래 확정 전 이용자가 주요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핵심 과제로 부상. AI 서비스 자체에서 승인까지 처리할 경우 오작동·외부 조작과 서비스별 상이한 승인 방식에 따른 신뢰 문제 존재</li> <li>4. RCS를 승인 채널로 활용하면 사전에 검증된 기업만 이름과 로고를 표시할 수 있어 이용자가 승인 요청 기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상품 이미지와 주문 정보·결제 금액·승인 버튼을 하나의 메시지에 담아 별도 앱 이동 없이 최종 결정 가능</li> <li>5. AI 에이전트가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는 스마트폰 기본 문자 앱에서 거래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실행 여부를 승인하는 방식. 승인 요청과 처리 결과가 문자 대화 목록에 기록돼 사후 확인도 가능하며 AI 자동화와 인간의 최종 통제를 분리하는 체계</li> <li>6. SKT는 AI가 이용자를 대신하는 업무 범위가 확대될수록 중요한 거래에서 인간이 직접 판단하는 점점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판단. RCS를 AI 에이전트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검증·승인 채널로 발전시켜 글로벌 메시징 표준으로 확장하려는 구상</li> </ol>                                    |
| 공정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산업이 커지면서 AI에 대한 신뢰성의 이슈도 부각.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존 문자메시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li> </ul>                                                                                                                                                                                                                                                                                                                                                                                                                                                                                                                                                                                                                                                                                                                                                                                                                                                                |
| KT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T가 기업·공공기관 대상 특화 5G 서비스를 확대하며 앱별로 업무망과 일반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앱 슬라이싱 기술 적용 추진.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업무용 앱은 기업 전용 5G로, 개인용 앱은 일반망으로 연결해 업무와 개인 환경을 분리하는 구조</li> <li>2. 삼성전자·구글과 상용 스마트폰용 앱 슬라이싱 기술을 공동 개발·검증하며 고객사가 앱별 보안 정책과 네트워크 품질을 설정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임직원은 별도 업무 단말 없이 스마트폰 한 대로 개인 서비스와 보안이 적용된 기업 업무를 병행하는 방식</li> <li>3. 신규 '5G 업무망 임대'에그는 노트북에 전용 단말을 연결해 사무실 밖에서도 보안이 적용된 사내 업무망에 접속하도록 지원. KT가 서비스 개통부터 단말 운영과 장애 대응까지 맡아 기업·기관의 유지관리와 행정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li> <li>4. 5G SA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일반 상용망과 기관 전용망을 분리하고 업무 트래픽은 별도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구조. 인터넷망을 경유하는 기존 VPN과 달리 KT 무선망과 고객사 사내망을 전용회선 기반 폐쇄망으로 직접 연결</li> <li>5. 차세대 B2B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양자내성암호·AI-RAN·AI 자율보안·AI Edge 기술을 개발해 미래 보안 위협과 피지컬 AI 수요에 대응. 주요 키 정보를 유심에 격리하고 고성능 연산은 단말이 처리하는 'USIM PQ' 기술도 연구하는 단계</li> <li>6. 전국 약 3,500개 KT 통신국사를 AI 컴퓨팅 거점으로 활용해 데이터를 현장 가까이에서 처리하는 분산형 AI 인프라 구축 계획. 로봇·자율주행 등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피지컬 AI 서비스에 초저지연·고신뢰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려는 구상</li> </ol>                                         |
| 공정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는 5G 상용화 초기부터 코어망에 5G를 강화하여 5G-SA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했고, 통신사들 중 가장 먼저 5G-SA 전환</li> <li>■ 앱 슬라이싱,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이러한 5G-SA 기반 하에 가능한 서비스들</li> <li>■ 5G-SA가 당장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및 품질 개선 등의 효과는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li> </ul>                                                                                                                                                                                                                                                                                                                                                                                                                                                                                                                                                                                                                                                                                                                        |
| 산업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I 확산과 6G 전환을 앞두고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통신사 수익 정체화 동시 나타나는 '트래픽-수익 디커플링'이 핵심 산업 문제로 부상. 네트워크 증설 부담은 지속되는 반면 기대수익은 낮아지면서 미래망 투자 유인을 높일 정책과 신규 수익모델 논의 확대</li> <li>2.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시장 성숙으로 ARPU는 하락하는 가운데 AI의 이미지·영상 활용 확대가 다운로드뿐 아니라 업로드 트래픽 증가까지 촉진할 가능성. EU는 디지털네트워크법을 통해 규제 조율·주파수 제도·차세대망 전환·특화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투자환경 개편 추진</li> <li>3. 통신3사는 기존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에 투자·혁신 목표를 추가하고 상품과 가격 설계의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 알뜰폰 자생력 강화와 신규 결합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 중심 경쟁에서 품질·서비스 중심 경쟁으로 전환하는 방향</li> <li>4. 자율주행·로봇·산업용 AI 확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특화 네트워크 서비스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상.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QoS 서비스의 개발·요금 자율성, 5G SA 등 초기 기술의 '선출시·후검증' 방식 등이 통신업계 제안</li> <li>5. 신규 수익원으로 망 이용대가보다 네트워크·보안·엣지AI를 결합한 산업별 AX 서비스와 품질·인증 기반 사업모델을 확대하는 방안 제시. 글로벌 AI 사업자에게도 국내 인증·보안·엣지 주론·기업망 연동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협력모델 필요성 제기</li> <li>6. 정부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더해 투자 촉진을 통신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포함하고 기존망 전환과 차세대 인프라 확대 관련 논의 진행. AI·클라우드·해저케이블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연결 환경에 맞춰 법체계의 포괄성·투자 촉진·거버넌스를 단계적으로 재설계하는 구상</li> </ol> |
| 중립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는 통신사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나, N/W 투자 및 증설,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매출 증가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거나 일부 방향성이 불일치 하는 경우도 발생</li> <li>■ AI 시대를 맞이하여 업로드 트래픽 등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BM과 수요를 꼼꼼히 따져서 무리한 선투자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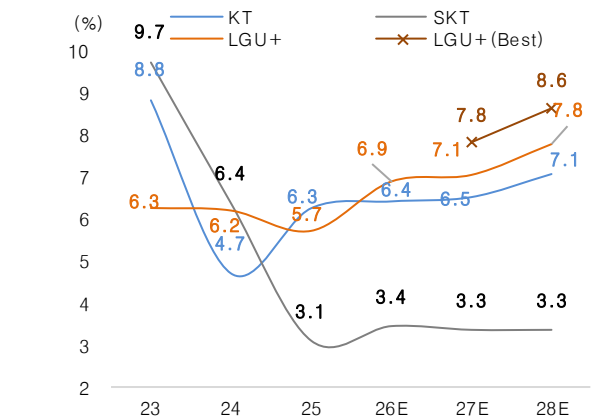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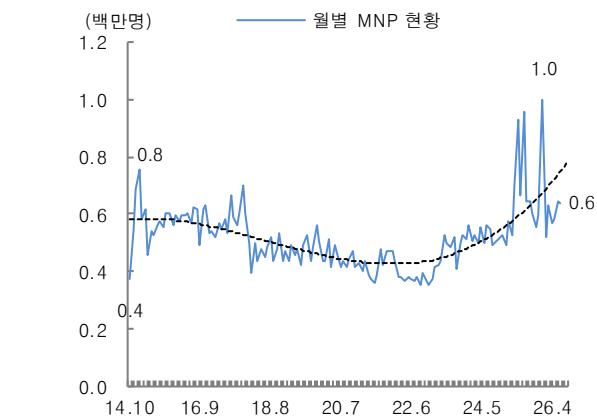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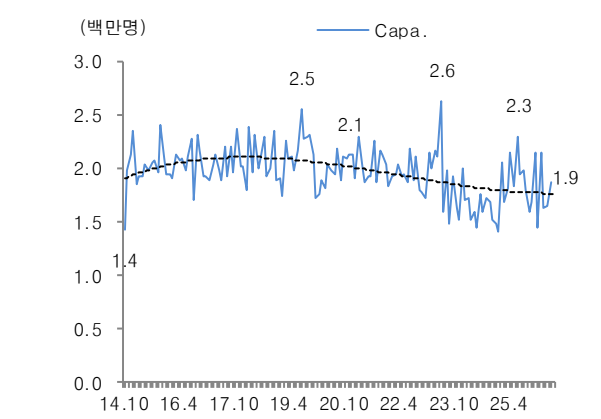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7월) 64만명, -0.7만명 mom. 25년 월평균 6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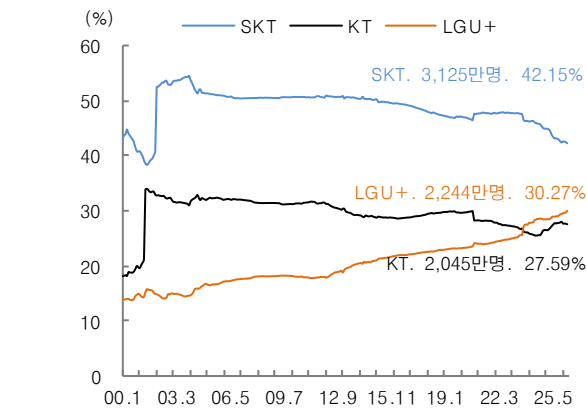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87만명(26.6월). 24~25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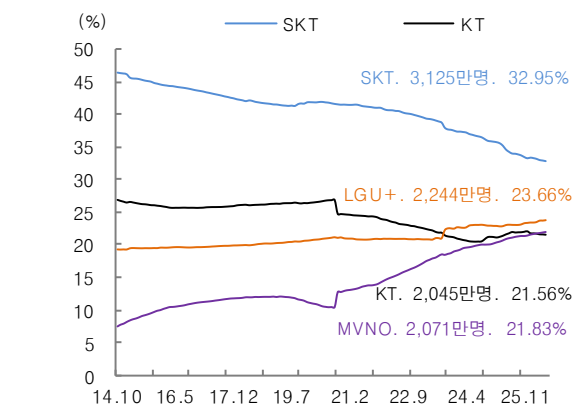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6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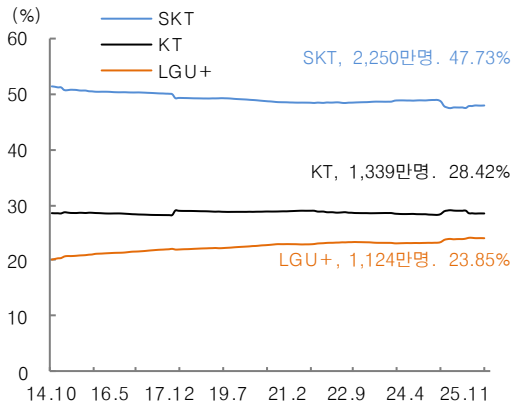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6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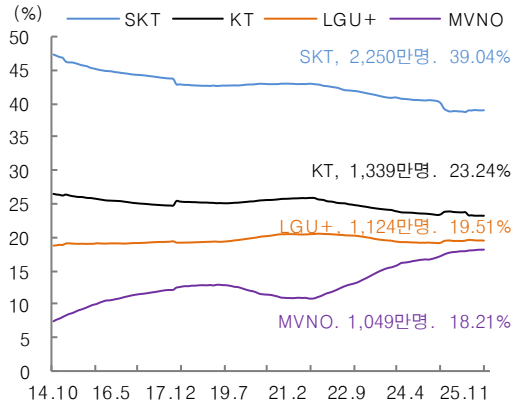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6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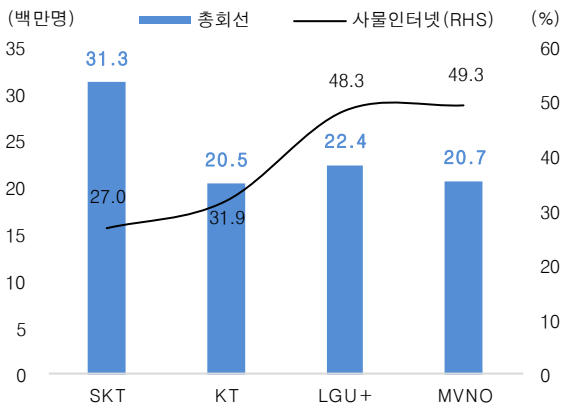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6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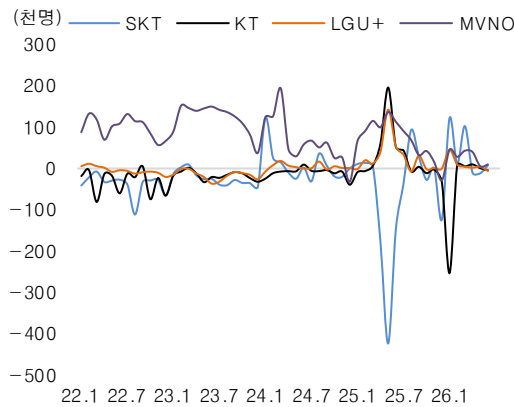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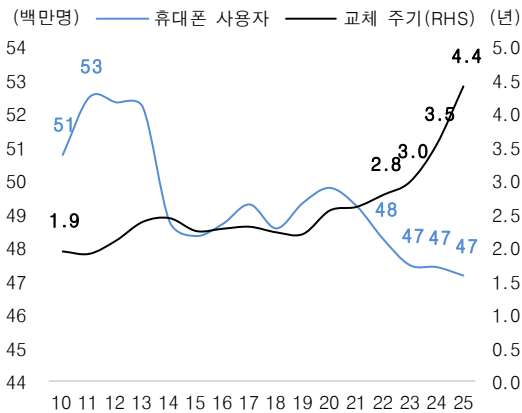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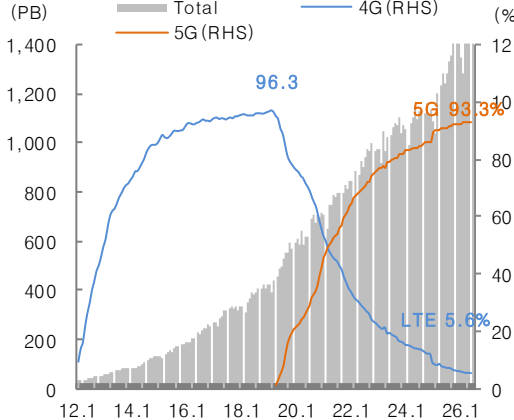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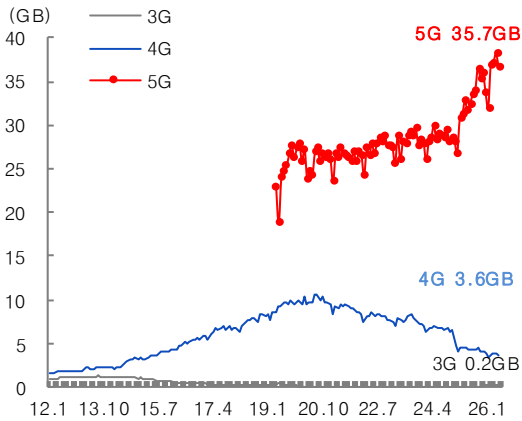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3.3%(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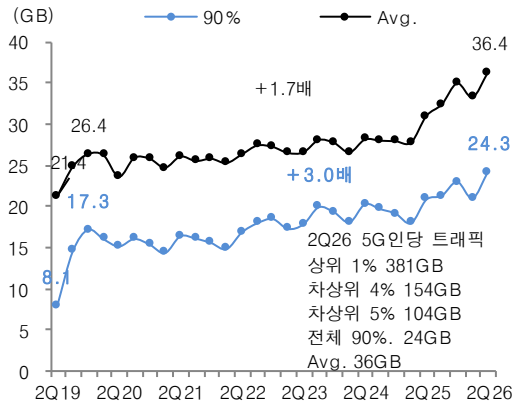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5.7GB(26.6월), -1.5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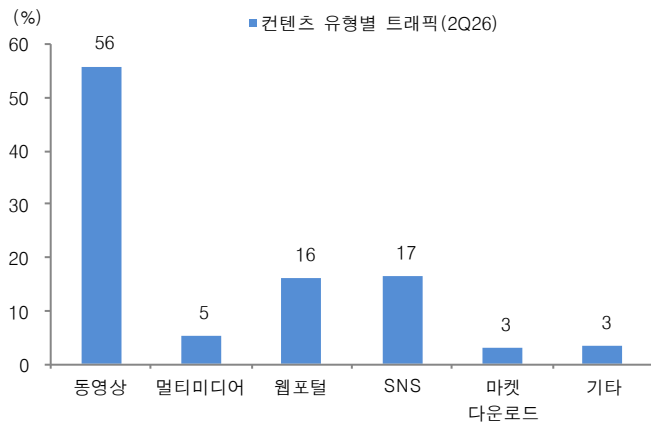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2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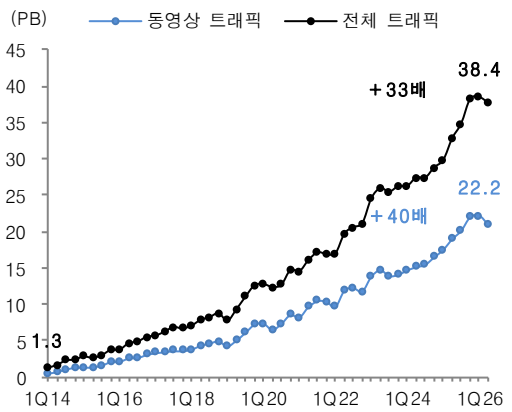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2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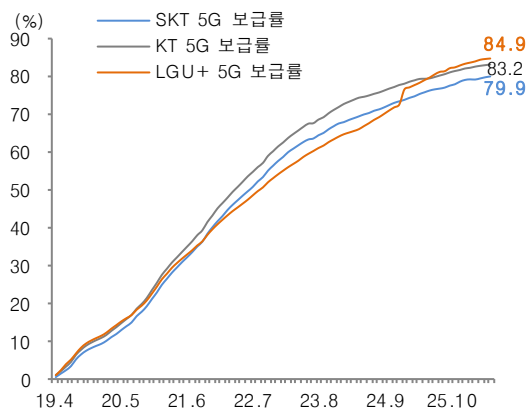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2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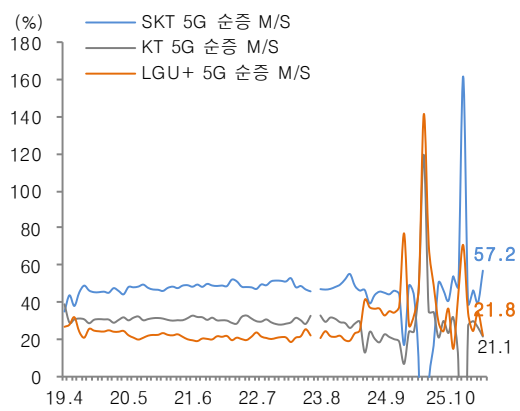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2.0%(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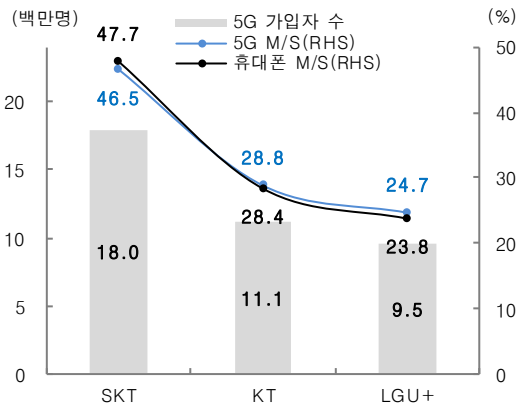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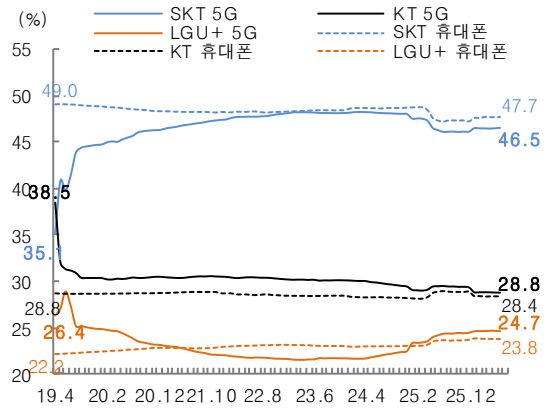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6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6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